

지역 매아리



정읍시,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실시

정읍시가 최근 다문화가족 30명을 초청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의 전통을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다양한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자리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신비문화체험관에서는 생활예절을 배우고 우리과자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명관교택에서는 문화해설사와 함께 곳곳을 둘러본 후, 가족단위로 사진촬영을 진행하였다.

이번 탐방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가족들과도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한편 정읍시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건강증진실 연장 운영

고창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온 고객편의시설 건강증진실이 11월부터 운영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고창전통시장 건강증진실에는 런닝머신과 사이클 등 14여종의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12년 건축된 이후 많은 고객들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3년 동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추진으로 고창전통시장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특성화 시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시장을 찾는 고객과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증진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실은 이번 운영 시간 연장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과 고객들이 건강증진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창전통시장이 자주 찾아오고 싶은 생활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명실상부 전국 귀농귀촌 1번지

고창군, '2017 소비자의 선택' 귀농귀촌도시 부문 대상 수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7 소비자의 선택'에서 귀농귀촌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귀농귀촌 1번지로서의 명성을 입증했다.

1일 그랜드힐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소비자의 선택' 시상식은 중앙일보와 중앙SUNDAY,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학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탁월한 품질과 창조적이며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직접 선택을 받은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시상하는 상이다.

고창군은 지난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설치했으며 귀농귀촌인들이 설립한 민간단체인 (사)고창군 귀농귀촌협회의와 함께 정책을 추진하는 민간커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귀농인 영농정착금을 비롯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소규모 귀농귀촌 기반조성사업 등 귀농귀촌시 필요한 것과 귀농귀촌학교, 마을영화회, 귀농귀촌 멘토 지원 등 귀농귀촌인이 농촌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생태환경 속에 복분자와 수박, 멜론 등 전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지닌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대도시와의 인접성과 편리한 교통망 문화와 예술, 스포츠를 비롯해 의료서비스 등 부족한 것이 없길 수 있는 여가생활 여건 등이 고르게 잘 갖춰져 일거일치 전국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고창=김영식기자

생활터전으로서의 환경적 여건과 함께 체계적이고 든든한 행정적 지원이 더해져 지난해에만 1405세대 2332명이 귀농귀촌을 결정하고 정착했으며, 지난 10년간 총 7501세대 1만1853명의 도시민들이 정착하면서 귀농귀촌인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 매김했다.

군은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추진으로 올해에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종합교육시설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11월 준공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준공 후 교육생을 오는 12월에 모집하고 선발을 통해 내년 초에 입주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귀농귀촌 전에 1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면서 귀농귀촌 후 영농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 실습교육을 받게 되며 군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제1회 부안군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이 1일 부안군청 광장에서 개최됐다.

부안군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체합·전시마당·특별행사 등 프로그램 진행 '호응'

배움과 나눔이 하나 된 평생학습동아리와 지역주민들이 모여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는 2017 제1회 부안군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이 1일 부안군청 광장에서 개최됐다.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체험마당과 전시마당, 성과발표, 특별행사 등 목공예, 벗짚공예, 로봇체험, 천연비누, 커피·제과 제빵 등 21개 분야의 다양한 작품 전시 및 체험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성과발표에는 풍물과 라인 댄스, 난타, 합창, 생활체조, 시낭송 등 읍면

주민자치센터 및 부안교육문화회관, 부안중국어문화원 등 19개 팀이 공연을 펼쳐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행사 개최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배우는 즐거움을 직접 체험하고 나누면서 공감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부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성인문해교육과 치매예방지도사, 행복학습매니저, 드론지도사 양성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자리 창출, 고용기반 확대 등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국화향기 가득한 고창에서 책과 함께 문학여행 국내 최초 책영화제, 고창 책마을해리에서 개막

국내 최초 '책영화제'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창군 해리면 책마을해리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책영화제'는 책과 영화, 모험을 떠나다를 테마로 전 세계 여덟 나라의 책과 영화 스물여섯 편을 만날 수 있다.

영화제에서는 모험 혹은 여행을 테마로 한 책과 영화를 모아 상영하고, 책과 영화 이야기를 참여자와 감독, 영화매체 편집장, 책평론가, 영화전문가, 저자 등과 함께하는 북씨네토크로 진행된다.

아울러 올 여름부터 '함께 읽기와 함께 쓰기'에 매진해온 지역 어르신들과 책이 주인공이 되는 자서전 '이토록 그림고 아름다운'과 '여든 꽃', '마을, 숨은그림찾기' 마을그림책 출판기념회, 청소년인문독서 예술캠프에 참여한 어린 작가 친구들의 출판 기념회도 진행한다.

책을 주제로 한 책 영상 공모전도 진행되어 북트래일러를 포함한 책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모하고 상영, 시상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상작에는 대하소설 전집 나무북스텐드, 책마을해리 가족 숙박권 등 다양한 부



상이 준비돼있다.

'책영화제'의 첫날인 3일에는 지역공공체와 함께하는 지역한마당이 열리며, 4일 물체 낚은 마을학교, 5일 마지막 날은 책영화제를 후원하고 지원봉사로 활동한 해리포터즈(책마을해리의 '해리'와 서포터즈의 '포터즈')의 날로 진행된다.

영화제 후에는 3일간의 축제 진행 과정을 포함해 한권의 책 '책의 미래, 책영화제(가제)'로 묶어 출판도 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 전문채널 알씨네(씨알 미디어)에서는 '책영화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페이스북라이브와 유튜브라이브로 방송한다. 특히 알씨네 라이브는 영화자널리스트 김현민과 영화평론가 허남웅이 출연해 진행한다.

책영화제 참가는 무료이고, 숙박 등 자세한 사항은 책마을해리 블로그(<http://blog.naver.com/pbvillage>)나 전화(010-4175-0914)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가을철 산불방지 체제 돌입

부안군은 군청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부안소방서, 군부대, 부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2017년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군은 다음달 17일까지 산불을 예방하려고 산불감시원 50명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27명을 선발하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작동하는 등 철저한 산불감시활동과 더불어 감

시원에게 GPS 단말기를 지급해 산불 발생시 즉시 신고 및 초동진화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군은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로 입산자 실화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해 주요 도로변에 산불조심 깃발 교체, 소각금지판 설치, 마을캠프방송 및 차량 가두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한·중 문화예술 공예부문 교류전 개최

1일부터 이틀간 정읍시 연지아트홀 전시실에서 한·중 문화예술 공예부문 교류전이 열린다.

이번 교류전은 중국 영성시와 우리시 미술교류를 통한 지역미술계 발전 도모를 이끌어내고자 시작했다.

중국 산둥성 영성시 종이공예 문화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있는 석영에 작가의 종이공예 작품과 중국 위헤시

밀가루 공예협회 회장인 마숙령 작가의 공예작품을 전시한다.

아울러 우리시의 한지공예가 한지숙 작가는 전통한옥 문살에 한지 등을 접목과 현대의 조화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정읍시의 전통준 장공과 정읍사 여인, 장금이 등의 캐릭터를 한지인형으로 만들어 전시한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찰'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 SET

GIF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 SET 3호 | 750ml 1ea/12%

GIF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 SET 5호 | 375ml 5ea/13%

GIF SET 6호 | 500ml 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 SET 일반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